



즉시 배포용: 2022년 11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M-CORPS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에서 기후 기술 제조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 370만 달러 이상 투자 발표

프로그램은 기술 기업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과 지역 공급 체인 파트너 연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줄이겠다는 기후법의 목표 달성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혁신 기후 기술 또는 기후 기술 제조 및 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37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Corps 프로그램은 지방 공급 체인 파트너, 제조업자, 공급업체 등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스타트업 스케일링 상품과 연결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연결성 확보를 우선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전국 선도적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ic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목표인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탄소 배출량 85% 감축 달성을 지원합니다.

"기후 리더로서, 뉴욕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한편, 우리의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의 성장하는 친환경 경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주 전역의 제조 시설과 연결하여 경제 기회 및 지방 공급 체인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를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제조 개발 절차와 관련한 핵심 결정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NYSERDA와 협력할 프로그램 시행자를 선정합니다. 시행자는 공급 체인 관계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기후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 지역 자원과의 연결성 확보 등을 담당합니다. 프로그램 시행자는 370만 달러를 투자받아 성공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합니다.

Doreen M. Harris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혁신가들과 뉴욕의 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기업가들에게 전혀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후 탄력성과 청정 에너지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제품의 수를 늘려 유해한 배출가스 감축을 지원합니다."

Rory M. Christian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 PSC**)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CLCPA에 따른 엄격한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M-Corps와 같은 프로그램은 뉴욕주 청정 에너지 인력 양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RDA의 M-Corps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혁신과 공정을 통해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후 기술 스타트업, 지역 파트너, 소외된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음으로써, 이러한 노력은 환경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친환경 경제를 지원합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행동 위원회(Climute Action Council)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저는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전국 최고의 친환경 경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뉴욕주 전역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고임금의 친환경 일자리를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구를 보호합니다."

NYSERDA는 2023년 1월 4일까지 신청 대상 단체의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기후 기술 하드웨어 및 스타트업 시장화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반드시 뉴욕주와 뉴욕의 제조업 및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동부시간(ET) 기준 2022년 11월 3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웹비나](#)에 등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 NYSERDA가 지원했던 M-Corps 프로그램 버전을 대체합니다. 2017년부터 NYSERDA 기술 시장화 프로그램(Technology to Market Program)은 1억 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500개 클라이언트를 지원했고 그 결과 2,200개 이상의 일자리, 민관투자 16억 달러, 스타트업 기업 수익 6억 달러, 300개 상품 시장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M-Corps 기술 프로그램은 4년간 자본 4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50개 이상의 코호트 기업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의 자금 지원은 주정부의 10개년 53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 기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NYSERDA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20개에 대한 35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거의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